

보도시점 2026. 9. 3.(목) 12:00
(2026. 9. 4.(금) 조간)

배포 2026. 9. 3.(목) 09:00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신규 참여대학 5개교 선정... 48개 대학, 5.5만명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 지원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동국대학교, 상명대학교, 숭실대학교, 한남대학교 신규 선정
- 참여대학 43→48개교로 확대,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 안전망 지속 확산

【관련 국정과제】 27.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2026년도 하반기 신규 참여대학으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동국대학교, 상명대학교, 숭실대학교, 한남대학교 5개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국정과제 27번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의 일환으로, 정부 R&D 과제 등을 통해 대학(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하는 학생지원금에 정부 지원을 연계하여 매월 기준금액(월 석사과정 80만원, 박사과정 110만원) 이상 지급을 보장*하고, 대학 차원의 학생지원금 지급·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예) 박사과정생 A학생 산단 지원금

= 정부R&D 학생인건비 50만원 + 학술융역과제 장학금 20만원 + 정부지원금 40만원

이번 선정으로 사업 참여대학은 43개교에서 48개교로, 월 기준금액 보장 학생은 약 5.2만 명에서 5.5만 명으로 늘어난다.

한편, 사업 참여를 통해 대학이 지급하는 학생지원금의 최소 수준이 확보되면서 전반적인 학생지원금 지급 수준도 개선되고 있다. 2025년 참여대학 35개교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학생지원금은 석사과정의 경우 141만원에서 164만원으로, 박사과정은 200만원에서 231만원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 대비 2025년 전체지급 수준이 약 15.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학별 학생 수를 반영한 '25년 참여대학 35개교의 학생지원금 현황 분석 결과

과기정통부는 신규 선정된 5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별 맞춤형 컨설팅, 초기 집행 현황 모니터링 등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이 조기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1단계 도입기('25~'27) 동안 사업 운영 현황과 대학 현장의 참여 수요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참여 기반을 확충하고, 1단계 운영성과와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2단계 발전기('28~'30)에는 지원수준 상향, 지급 안정성 강화, 대학의 자율성 및 책무성 제고 등 사업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6년 하반기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공모 선정 결과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공지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https://www.nrf.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양성과	책임자	과 장	최진혁 (044-202-4830)
		담당자	사 무 관	심범석 (044-202-4832)
관련기관	한국연구재단 인재양성사업팀	책임자	팀 장	차석일 (042-869-6451)
		담당자	선임연구원	송재문 (042-869-6456)

